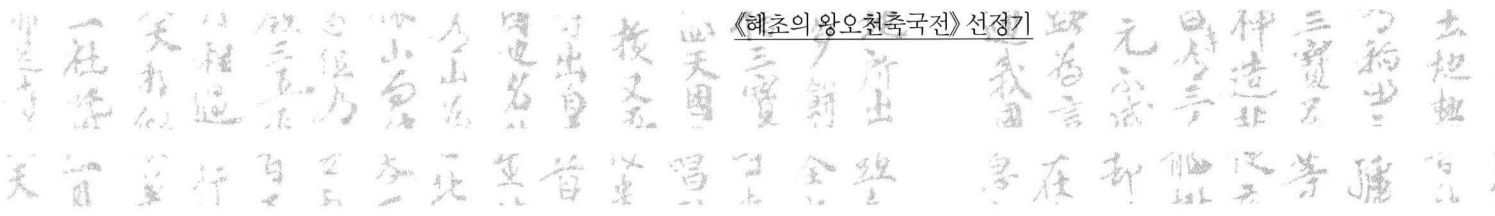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선정기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6월 후보도서



8세기 한국 최초의 세계인 혜초를 찾아서

<출판저널> 6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가 지난 5월 11일 <출판저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후보도서는 앤서니 케니의 《서양철학사》, 이용한·안홍범의 《숨씨마을 숨씨기행》, 이경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김연수의 《청춘의 문장들》, 박원서·이호철 외의 《내 마음속 사진첩에서 꺼낸 이 한 장의 사진》, 프랑수아 플라스의 《오르배 섬 사람들이 만든 지도책》(전3권), 장하준의 《사다리 건너차기》, 류대현의 《떡볶이 집에서 케인스를 만나다》, 전혜성의 《스기호씨 부부의 집나들이》, 정수일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이유명호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등 모두 11권이었다.

기자들은 논의 끝에 최종 후보를 정수일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이유명호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이경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류대현의 《떡볶이 집에서 케인스를 만나다》 등으로 압축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은 남자의 몸 위주로 연구·치료되어 오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자의 몸을 중심으로 건강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에무를 통한 건강법을 소개하는 건강교육가이기도 한 저자는 여성의 역사를 비롯해 과학·의학 등을 아우르며 여성 몸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는 부모의 이혼, 선생님들의 부조리, 공부만을 강요하는 현실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다람쥐 쳇바퀴생활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내면에 어떤 꿈과 욕망을 숨기고 있는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중학생 재준이의 일기장을 통해 그 속내를 깊이 파고드는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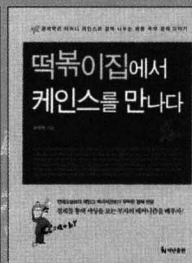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혜초 지음 | 정수일 역주 | 화고재 | 506쪽 |
값 48,000원



《8세기 부부의 집나들이》
전혜성 지음 | 문학동네 | 350쪽 |
값 9,000원



《떡볶이집에서 케인스를 만나다》
루대현 지음 | 다산 | 296쪽 | 값 11,000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이우명호 지음 | 웅진닷컴 | 288쪽 |
값 13,000원

《떡볶이집에서 케인스를 만나다》는 생활 속의 경제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특히 '알기 쉽다'는 것은 이 책의 더없는 미덕이다. 기존의 경제학 용어는 저자의 독특한 언어와 친근한 예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경제서와 달리 채테크의 관점에서 경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일반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채테크의 기본은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원본 분량의 열 배에 해당하는 503개 주석을 붙인 《왕오천축국전》 역주서다. 1908년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이후 국내에서 이렇다할 연구성과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역주서의 의미는 100년의 숙원을 이룩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8세기 한국인 혜초가 묘사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낯선 풍습을 이슬람학의 세계적 학자인 정수일 선생의 설명에 따라 쫓아가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기자들은 논의 끝에 정수일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선정했다. 정수일은 영어로 된 고전인 《중국으로 가는 길》과 아랍어로 된 고전인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역주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한문으로 된 고전인 《왕오천축국전》을 역주하는 등 문명교류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내용상의 미뿐만 아니라 편집과 제작에서도 공을 들인 책이다. 비단천으로 쓴 양장 제본에 《왕오천축국전》과 관련된 다양한 컬러 도판은 물론 혜초 초상과 기행 노정도를 사상 처음 디지털로 복원했다. 노학자의 기나긴 여정에 독자들의 관심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